



2023년 / 12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25일(월): 성탄절 휴무
- 12월 27일(수): 2024년 달력 발송

■ 연구원 소식

2024년 달력 발송

우리 연구원에서 제작한 2024년 달력이 이번 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구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편으로, 이외 지역은 12월 27일 전후 발송되어 2023년을 마치고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도 2024년 달력을 받지 못한 회원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편히 연락주시면 추가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경기평화누리길 제4구간 - 1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행주대첩비 앞에서 내디딘 회원들의 발걸음이 힘찼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한강의 물가로 향했으니, 오르내리던 길이 이내 평지로 이어졌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곳에서 오두산까지는 DMZ가 아니다. 지형적인 특성상 한강으로의 대남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철책을 설치했던 곳이다. 특히 무장한 공비들을 막기 위해 강변과 강물 위예까지 초소를 운영하던 곳이었다. 밀물 때에 북한의 관산포에서 출발해서 호흡용 깔때기 하나를 입에 물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물살 따라 1시간 30분이면 난지도에 도착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2012년부터 자유로 입구까지의 철책을 모두 제거하였으니, 실로 50여 년만의 일이었다. 접근 금지의 땅이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봄을 맞아 더욱 넓어진 행호幸湖의 강물이 출렁거렸다. 그 건너 방화동의 개화산이 나직했다. 그 왼쪽은 일제가 동굴 진지를 파놓은 궁산宮山이다. 궁산은 산자락의 양천향교에서 공자孔子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라고 한다. 궁산은 또 성산·파산·진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니,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한강 하구의 경치가 중국 동정호洞庭湖의 악양루岳陽樓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겸재謙齋 정선鄭敼은 양천 현감을 지내면서 이 일대의 풍광을 오늘에 전했다. 겸재가 주로 올라가 그림을 그리던 장소는 궁산의 소악루小岳樓였는데, 소악루라는 이름도 악양루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 겸재가 그린 일련의 그림들이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실렸으니, 태평스럽고 안온하던 모습이 사뭇 정답다.

그런데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지금의 김포공항 위치에 육군 항공대가 운영하는 비행장을 건설했다.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의 알뜨르 들판에다가는 해군이 주둔할 비행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중국 침략을 준비하던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 각종 군사시설물을 세웠으니, 김포의 비행장도 그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궁산의 땅굴은 위치나 규모로 미루어 무기와 유류의 보관 외에도, 공습이 있는 경우 지휘부가 피신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궁산은 행주산성과 대각선으로 마주했으니, 한강을 내다보기에 유리한 곳이라서 관측소 역할도 했으리라 미루어진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